'세계로 웅비하는 대학' 건설할 때

특별기고

'경희가족에 바란다' — (2) 교수와 노조

교수 낡은 교수사회 '자정운동' 전개할 때
노조 능력에 의한 차등 임금제 도입 필요

다음은 교수님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자.

학생들이 교수평가를 하겠다고 3년에 걸쳐 문건을 작성해 배포하고 있으나 교양과목에 준하고 그것도 강사에게만 적용하는 웃지 못할 현실을 보기도 한다. 우리의 교수님들이 무엇 때문에 기피하려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보기엔 능력있고 소신있고 실력자인 우리 교수님들인데…….

물론 여기에는 학생이 학생답게 학생의 신분을 지켰을 때를 전제로 해야겠지만……. 그러나 왜 실력있고 유능한 교수가 학생들을 먼저 선도할 생각은 가져 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젊은 교수가 자기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받아보는 경우, 다른 교수가 질시와 질타의 눈초리로 매도하는 경우는 없었는지? 유능하고 능력있는 교수가 신임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는 않았는지?

문리대 모학과의 교수님들은 방학중에도 전 교수가 연구실에 나와서 연구하는 모습을 몇년 동안이나 본 적이 있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학과이지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이런 환경이라면 어느 학생이 교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있으며, 어느 직원이 교수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근래에 들어 교수사회와 관련된 말썽의 비리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학계가 사회적 지탄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90년에는 개인병원을 2개나 경영하고 있던 명문대학의대교수가 탈세와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돈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드러내준 사건이었다.

우리의 교수가 왜 이렇게 비리로 오염돼 가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대학을 상아탑, 대학교수를 사회의 최고지성이라 부른다. 학문, 연구, 봉사로 표현되는 대학의 3대 기능이 이 사회에서 그만큼 중요하고 또 긴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몇몇 교수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일탈해 전체 교수사회에 치유기 어려운 상처를 입히고 있다.

물론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현상만을 질타하고 '사회가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대학교수만은 푸르고 깨끗해야 한다'는 언론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윤리, 도덕론만으로 총체적 모순 덩어리로 둘러싸인 이사회의 한 자연인에 불과한 대학교수를 질타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면도 없지 않다.

제제할 방법이 없는 학계의 현실이나 '금송아지'를 싸들고 덤벼드는 학부모가 있는 교육현실에서 입시부정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이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논문표절 등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학회차원의 규제장치를 마련한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사회학회는 지난 12월초에 열린 후반기학술대회에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라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윤리강령초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학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처럼 학식으로나 경륜으로나 존경받을 만한 교수가 우리 대학사회에서는 얼마든지 많고, 이들에게는 사회가 타락할수록 폭넓은 학식과 학문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사회를 정신적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교수사회의 자성이 먼저 이루어져서 교수님들이 이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권위의 위기', '도덕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교수사회 자정운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바란다.

새로 임금협상의 시기가 다가온다.

시대의 바뀜은 생활의 패턴을 바꾸게 한다. 흑백 TV도 옆집에서 보고 자란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컬러텔레비전도 30인치 이상을 선호하여, 14인치를 소지하고 있는 나는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지곤 한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체결되고 언제 어떻게 치솟을지 모르는 물가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급여의 인상폭은 적었다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 원칙인지는 모르나 '하후상박'이니 공평하게 몇%인상이니 하는 덕택에 나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상당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다.

이는 어찌면 나같이 능력없는 사람들에게는 환영받는 일이라 하겠지만, 능력있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현실에서 우리의 임금협상은 어딘지 모르게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를 위해 고생하고 수고해주는 노동조합에 감사는 하지만 세계적 경쟁에서는 우리학교가 점차로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세계의 기업은 물론 국내에서도 유수한 기업들은 급여의 인상이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인상되어, 함께 입사한 직원간에도 급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사로 읽고, 우리 학교도 이제는 현실을 돌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 비록 나의 급여는 인상되지 않더라도 능력있는 교직원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학교는 닫혀진 세계가 아니라 열려진 경쟁의 세계로 기수를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한국의 교육정책을 보면 98년부터는 자유경쟁체제로 들어설 것 같고, 2002년경에는 모든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작전을 펴야 한다는 예측들은 우리를 경쟁시대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교육의 문호는 개방되어가고 있는데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라 생각된다.

21세기를 주도하고 이끌어갈 경희대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없는 내가 조금 덜 받더라도 안일한 협상에 의한 급여의 인상보다는 능력에 의한 급여제도를 획기적으로 받아들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교수나 직원, 학생 모두가 경쟁의 틈바구니로 들어가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교수나 직원이나 한결같이 다른 학교가 몇% 올렸으니 몇% 올려달라는 식보다는, 10%정도 올린 재원으로 서로의 능력을 개발하고 연구의 기틀도 잡아가기 위해 그 금액을 모두 연구비로 충당하고 연구비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식의 요구가 교수협의회부터 출발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직원의 경우도 업무의 개선이나 창의력에 의해 연구비를 수령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직원이 되어야만 21세기 아니 2002년의 숨찬 경쟁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되면 나야 급여가 오르지 않아 다른 호구책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교수나 직원 스스로에게서 이렇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될 때 학교의 위상은 바로서고 일하려는 자세가 확립되며 세계로 웅비하는 경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 노 환
(연구처 연구과장)

◇남총련 탄압에 대하여…

폭압의 칼…'문민정부'

얼마전 모든 일간지 한 켠에는 한밤중에 전남대와 조선대에 전경들이 투입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었다. 언제나 그래 왔듯이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기물을 부수고 자료들을 탈취하고 수배자 검거에 핏발을 세웠을 것이다. 지금 광주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곳곳에선 불심검문이 행해지고 학내엔 경찰이 상주하고 있다.

지금은 80년대가 아니다.

소위 '문민정부'라 자칭하는 김영삼정권이 이같은 과거 군사정권시기에나 행해왔던 폭압을 퍼부른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경악을 안겨주고 있다.

그렇다면 김영삼정권이 국민들의 믿음에 큰 구멍을 내면서까지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남총련)에 대한 탄압을 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수입개방문제로 인해 수세로 몰리고 있는 월민이고 믿어왔던 미국까지도 정부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결코 남총련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경인총련 20만 학도와 한총련 백만학도가 남총련에 대한 신의와 의리를 모아 결연한 의지로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 성 은
(조경·2)

朔風 교육계 '인질극'을 몰아내자

요즈음 신문과 방송을 접하며 새삼 이 땅에서 '교사'라는 직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해방 직후에는 교사중에 똑똑한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빨갱이'도 많았다던가? 그럼자도 못 밟는 다던 '스승'은, 그러나 반공이데올로기의 주입자로, 제 자식을 '대학'에 보내주는 거간꾼으로 변해 퇴근후의 과외가 학교수업보다 가계에 더 보탬이 되던 시절도 있었다.

과외금지 이후에는 어떠했었나.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당한채 철저히 '위대한 장군님'과 '옹립곡'에 몰사해야만 했었다.

참교육을 위해,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겠다고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파귀를 맞고, 교문 밖으로, 교단의 밖으로 끌려가야만 했었다.

이제 그 '스승'이 제자에게 기부금을 강요했던 과거를 고백하며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봉곡하고 있다.

이번에 상문고 교장이 기부금에서 유용한 돈은 25억에 이른다고 한다. 25억은 지난 해 정최인 재산공개에서도 문제가 되었듯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상교장은 마치 마르크스와 이멜다가 필리핀 민중으로부터 거둬들인 혈세로 호화스런 생활을 누렸듯이, 학부모들에게 자식의 대학진학을 볼모로 자신 일가의 영달을 꾀하는 인질극을 벌인 것이다.

결국 이 땅의 부모들은 더이상 자신의 아들·딸들을 의탁할 곳을 잃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위해 밤샘을 하는 것도, 국민학교부터 시작되는 연구수업, 가정방문, 정·부반장 선출등이 모두 없는 집 부모 자식들에게는 강건너에 난 남의 집의 불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어느 새 우리의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 아니라, 입시경쟁, 기부금 등으로 오히려 자살로 몰아넣는 죽음의 교육, 죽은 교육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상문고 학생의 자살과 그중안 사회문제시 되어왔던 입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많은 학생들, 그리고 등록금을 못낸 형편을 비관해 스스로 삶을 거둬들인 그 영혼들을, 그 아픔을 누가 어떤 식으로 보상 할 수 있을까.

교육은 사회의 전통을, 맥을 이어가고 더 나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밑바탕이다.

우리 민족이 그 많은 외침속에서 국권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맥을 면면히 이어올수 있었던 것은 가정에서, 마을에서, 횡으로 종으로 이어진 교육의 결과라는 것을 부정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UR도 중요하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도, 통일도, 그 거창하게 떠드는 국제화, 세계화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이 옳음과 아름다움과 선함을 배우는지, 추악한 거간질, 남들을 밟고 자신만을 추구하는 비열함을 배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세상엔 여러가지의 인간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버려진 정치는 차치하고서라도 자라나는 2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계에서는 더이상 제자를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는 그런 비열한 인간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들의 아들·딸, 동생들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어떠한 스승 아래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확인해야 할 때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지켜가야 하듯이.

(落兒)

얼굴들

교수동정

이경섭 교수 방미

【서울캠퍼스】▲이경섭(한의과대학·한의학과)교수=21일부터 29일까지 대한체열의학회 초청으로 한방·양방 공동진단 활용하는 DFTT 연수 세미나에 초청연사로 방미.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이주영(영문) ▲김정희(영문·1) ▲김석주(영문·4) ▲김태훈(사학·2) ▲이대희(철학) ▲김성남(생물·3) ▲정연주(생물·1) ▲김중현(지리·3) ▲안종오(법학·4) ▲박상진(법학·2) ▲이재국(법학·2) ▲김정미(정외·4) ▲최훈식(정외·2) ▲남기인(신방·2) ▲박미선(신방·3) ▲최성우(경제·4) ▲권지홍(경영·3) ▲문길주(경영·3) ▲정우택(경영·3) ▲김용훈(무역·4) ▲노회준(무역·3) ▲이동완(무역·3) ▲황우봉(무역) ▲이승(회계·4) ▲류연화(영교·2) ▲이우송(영교·1) ▲박성현(미교·2) ▲주경아(가관·1) ▲노은경(식영·2) ▲전미영(의상·3) ▲김문정(의상·4) ▲고경란(미학·92) ▲추지희(한의학·2) ▲곽창규(한의본·2) ▲홍대(치본·4) ▲김미영(약학·3) ▲김중희(약학·2) ▲정수진(성악) ▲이정희(성악·3) ▲김진경(체육·2) ▲송병우(체육·2) ▲이영재(삼의원·310) ▲이현미(삼의원209) ▲이근미(삼의원214) ▲정인우(삼의원513) ▲김명재(삼의원519) ▲박철우(삼의원519) ▲노준하(삼의원314) ▲정은영(삼의원220) ▲문지환(삼의원315) ▲장종수(삼의원418) ▲손식오(삼의원322)

【수원캠퍼스】▲노장(일문·2) ▲강시내(일문) ▲강은정(중문·1) ▲이력형(러시아어) ▲한혜정(행정) ▲노명성(행정·2) ▲양희연(우주·2) ▲박진우(기계·3) ▲김용재(기계·3) ▲정재훈(전자·4) ▲하기주(화학·2) ▲이성로(화학·2) ▲최은호(화학·2) ▲김태완(화학) ▲전용희(건축·3) ▲조윤철(원자) ▲정용준(원자·4) ▲이정문(전과·3) ▲박정미(산다) ▲이희진(체육·3) ▲김영곤(체육·4) ▲소은정(테니스부) ▲강경원(애지원302) ▲조현미(애지원333) ▲김지연(애지원559) ▲윤영아(애지원338) ▲전현주(애지원338) ▲김정곤(애지원501) ▲최수진(국선관) ▲송정현(국선관) ▲이봉석(금선관)

습 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지갑=장채분(의상·93)

【수원캠퍼스】◇지갑=장환수(경영·93) 박성용(불문·89) 이숙교(기계·90)

동문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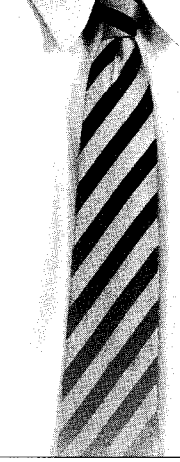
덕원여고 동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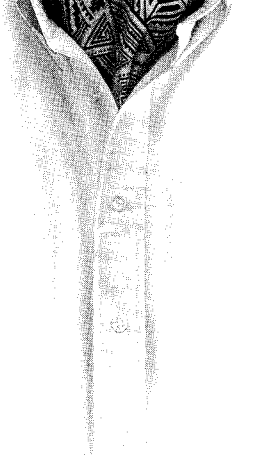
【서울캠퍼스】▲대전고=25일 6시 교문앞 ▲광덕고·대광여고=22일 5시30분 유림회관 ▲전주 영생고=25일 5시30분 제대앞 녹원 ▲의대 대전 향우회=24일 6시 한국관 ▲문호고=25일 6시 경희회관 ▲대구 영진고=24일 7시 아트호프

【수원캠퍼스】▲숭실·숭의고=24일 5시30분 공대식당 ▲덕원여고=23일 5시40분 공대식당 ▲광남고=22일 5시30분 깡통식당 ▲과천고=24일 5시30분 학생회관 1층로비 ▲수문고=25일 5시30분 외대앞.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출근과 동시에 넥타이를 풀어라.!





고정관념의 옷을 벗고 자유로운 사고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회사, 「현대자동차」

2000년대 미래차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회의.!
바퀴없는 차, 키트같은 무인차, 날으는 차를
개발하자는 등 별별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학시절 합리주의자로 자부하던 나는 '과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심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 생각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말도 안돼.! 실현가능성이 없잖아?"
이런 말들은 나의 고정관념이었음을.!
그리고, 이처럼 넥타이를 풀듯
자유로운 발상의 소유자들이 바로
엘란트라, 쏘나타 등을 개발한 주역이었음을.!

앞선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치있게 받아들이는 회사,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